



위성미가 30일 프랑스에서 열린 LPGA에비앙마스터스 골프대회 마지막날 16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뼈아픈 티샷 실수... 아쉬운 2위

(13번 홀)

카리 웹에 역전패...생애 첫 우승기회 놓쳐

김미현 4위...3개 대회 연속 '톱 10' 상승세

■ LPGA 에비앙마스터스 최종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관록의 카리 웹(호주·사진)에 눌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우승을 또 다음으로 미뤘다.

위성미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26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에비앙마스터스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폴라 크리머(미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던 위성미는 LPGA 투어 대회 4번째 준우승.

웹은 이날 4언더파 68타를 때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위성미와 데이비스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래프트나 비스코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던 웹은 미켈롭올트라오픈에 이어 시즌 3승을 올리면서 다승 선두로 나섰다. 또 웹은 우승 상금 45만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 164만7천433달러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158만324달러)를 따돌리고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다.

LPGA 투어 대회에 31번째이자 프로 데뷔 이후 7번째 출전 무대였던 위성미에게는 두 고 두고 아쉬운 최종 라운드였다.

경기 초반에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생애 첫 우승이자 LPGA 투어 사상 최연소 우승 기회를 맞았으나 후반의 티샷 실수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것.

웹에 1타 뒤진 2위로 경기에 나선 위성미는 9번홀(파5)에서 10m 짜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11번홀(파4)에서 1.8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11번홀에서 1타를 잃은 웹에 2타 앞선 단독 선



두로 나섰다.

그러나 위성미는 13번홀(파4)에서 드라이버 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벙커에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두번째샷 역시 그린 옆 벙커에 빠졌고 벙커에서 쳐낸 볼은 홀에 7m 나 모자라 끝내 1타를 잃고 말았다.

앞서 12번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1타 차로 추격한 웹과 데이비스에게 공동선두를 허용한 위성미는 웹이 14번홀(파4)에서

버디를 보태면서 공동2위로 내려 앉았다.

15번홀(파5)에서 파에 그친 위성미는 17번홀(파3)에서 6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집어 넣은 웹에게 2타 차로 뒤지면서 우승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야 연장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위성미는 티샷이 러프에 떨어졌고, 두번째 샷 마저 벙커에 떨어지면서 실낱같은 희망도 버려야 했다.

벙커에서 절묘하게 건져낸 세번째샷을 홀 1m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지만 세번째샷을 그린에 올려 파를 지킨 웹은 우승을 확정지었다.

앞서 경기를 마친 '슈퍼 팡돔' 김미현(29·KTF)은 6언더파 66타의 팡타를 휘둘러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4위에 올라 3개 대회 연속 '톱10'의 상승세를 이어 갔다.

재기에 성공한 박세리(29·CJ)는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5위를 차지, 4개 대회 연속 '톱10'이라는 나름대로 성과를 남겼다.

9언더파 279타로 공동8위에 오른 장정(26·기업은행)을 포함해 '코리아 군단'은 총 상금 300만달러의 특급 이벤트인 이 대회에서 4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C 서울이 2006 삼성 하우젠컵 우승을 확정지었다. 29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과의 경기를 마친 뒤 열린 시상식에서 FC 서울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FC 서울 하우젠컵 우승

전남 7위·광주 11위



광주 상무가 2006 삼성 하우젠컵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아쉬운 11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이

미 대회 우승이 확정된 FC서울을 2-1로 누르고 단독 7위로 올라섰다.

광주는 지난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삼성 하우젠컵 대회 경남FC와 최종전에서 전남 33분 경남의 김근철에게 빼앗긴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석패했다.

전남은 컵 대회 우승팀인 FC서울에 맞서 전반 시작 1분만에 셀미르가 첫 골을 터트리며 승기를 잡은 뒤 1-1로 동점 이던 후반 42분 주광윤의 결승 썬킥골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밖에 올 시즌 전기리그 1위를 차지했던 성남 일화는 '라이벌' 울산 현대와 2-2로 비겨 컵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컵 대회에서 무려 9경기 연속 무승(4무5패)으로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원 삼성은 이날 대구FC와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 4경기 연속 무패(2승2무)를 기록하며 12위에 올라섰다.

■ 삼성 하우젠컵 2006 최종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서울	27	8	3	2	20	11	+9
2	성남	22	6	4	3	16	12	+4
3	경남	22	7	1	5	16	14	+2
4	대전	21	5	6	2	15	9	+6
5	울산	21	6	3	4	17	12	+5
6	전북	20	6	2	5	15	13	+2
7	전남	20	6	2	5	14	13	+1
8	제주	20	6	2	5	12	12	0
9	포항	19	6	1	6	17	19	-2
10	부산	14	4	2	7	14	17	-3
11	광주	14	4	2	7	9	14	-5
12	수원	12	2	6	5	9	14	-5
13	대구	12	2	6	5	14	21	-7
14	인천	7	1	4	8	11	18	-7

하지만 올 시즌 문턱까지 갔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해 8위(승점 20)로 컵 대회를 마치는 아쉬움을 남겼고 포항 스틸러스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3-2로 꺾고 9위에 랭크됐다.

한편 '리틀 마라도나' 최성국(23·울산)은 이날 컵 대회 8호골째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골 경쟁을 벌인 뽀뽀(부산·7골)를 물리치고 득점왕에 오르며 토종 공격수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도움왕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두두(성남·도움 5개)가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보다 더 잘 칠 수 없을 정도였다...결과에 만족”

■ 위성미 일문일답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오늘 경기에 대해 말해달라.

▲오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샷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오늘 4언더파를 쳐서 선두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쉬운 것이 아니다.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

-오늘 퍼팅에서 약간 자신 없어하지 않

았다. ▲아니다.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는 그린이지만 실제로는 빠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1.8m 짜리 퍼팅이 홀을 너무 지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했다. 오늘 퍼팅은 아주 잘 했고 9번홀에서 특히 훌륭한 퍼팅을 했다.

-성적이 만족하는가. 아니면 우승을 못 해 안타까운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꾸준한 플레이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꾸준하게 칠 수 있었던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카리 웹, 로라 데이비스와 동반 플레이를 한 느낌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재미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로라는 여러 번 엄청난 샷을 선보였다. 카리는 꾸준함이 돋보였고 둘 다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라 배울 것이 많았다. 그러나 역시 그들과 플레이하는데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았다.